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김 준 호*·김 선 애**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련변인을 규명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9세에서 12세 사이의 초등학교 9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아동학대, 가족의 구조 및 기능,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측정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구조와 관련변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족기능과 관련변인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이 갈등적일수록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구조에 의해 아동학대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사회의 통념을 거부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주요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가족원이 만드는 화합도나 분위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한 가정의 분위기와 화합의 장본인이 부부임을 생각해 볼때 부부간의 갈등과 반목이 자녀학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경우 자녀는 그 가정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과잉활동증은 아동학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어,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방임될수록 아동의 공격성과 과잉활동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유형은 실질적인 신체적 학대보다도 우리가 흔히 학대라고 생각하지않기 쉬운 언어적 학대와 방임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종합적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변인은 가족의 기능(갈등적·전제적 분위기)변인, 아동학대 변인 아동 자신의 성별 및 연령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갈등적이고 전제적인 분위기와 아동학대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킨다. 가정의 갈등적이고 전제적인 분위기는 아동학대를 일으키고 아동학대는 다시 반사회적 행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사회학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 · 사회학

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직접적으로도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를 경험하고 방임될수록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은 증가하는 것을 이 연구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의 기능(특히 가정분위기)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며, 이 두가지 변인은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원만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예방에 출발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Ⅰ. 서 론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를 시작으로 아동에 대한 시각의 전환과 아동복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아동학대고발센터가 발족되는 등,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아동학대는 사회문제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정내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자녀관에 의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 대해 별반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없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는 아동학대를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개인적인 문제요, 자칫 은폐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로 간주하기 쉽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의 통계 숫자를 넘어서 한 아동이라도 심한 구타에 고통을 받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은 가정 밖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커서는 폭력을 쉽게 휘두르는 사람이 되거나 폭력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점은 아동학대의 문제가 공통의 관심을 갖고 연구,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 준다.

한편, 학대의 결과 또한 매우 심각하다. 학대당한 아동들은 슬픔, 불행감을 느끼며 심각한 정서장애를 갖게 된다. 많은 학자들이 학대받으면서 성장한 아동들이 신체 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행동 장애가 심해지면 도둑질, 과잉활동증, 충동적 성질, 인내심 결핍, 공격적 행동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권지영, 1991; 김정준, 1987; Green, 1978; Hilberman & Munson, 1978; Hoffman-plotkin & Twenty man, 1984;

Johnson & Morse, 1968]. 이러한 특성들이 곧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 누적된다면 그 후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가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아동학대는 가정과 학교, 사회 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인 아동학대는 아마도 아동의 성장 중심지인 아동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상 가정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의 영향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내원 아동, 가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보호소에 수용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피조사자가 이미 문제아로서 취급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연구였다[김화영, 서용태, 최영륜, 1984; 주영희, 1984; 안동현, 홍강의, 1987]. 본 연구에서는 아직은 뚜렷한 문제를 나타내지 않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 변인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일반적이고 긴 안목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도둑질이나 폭력, 가출 등 문제 행동은 유아기부터 이미 그 원인이 잠재해 있으며 이것이 누적, 반복됨으로써 문제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생각할 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와 관련변인

외국에서는 1960년이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돌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서 나온 연구들이 몇 편 있을 뿐[김정준, 1986; 김광일, 고복자, 1987; 안동현, 홍강의, 1987; 권자영, 1991] 아직 연구가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요인을 포괄적으로 취급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와 관련 변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이 중 사회 심리적 접근에서는 가정의 여러 특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 및 문화적 여러 측면이 아동학대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실업, 무직, 부모의 양육방식 등을 들고 있다(Gil, 1971). 정신병리학적 접근을 지지하는 Kempe와 Helfer(1972)등은 부모의 정서 상태, 과거의 경력, 성격 등을 중요한 변인으로 들고 있고, Gil(1970)은 부모의 연령, 교육정도, 취업 유무, 양육 경험 등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 사회체계적 접근에서는 광범위한 사회환경을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아동학대는 아동, 부모, 가족, 환경의 다요인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에 주목하여 가정환경과 부모의 특성을 아동학대의 주요 관련변인으로 보고, 아동 자신의 특성인 성별, 연령 등과 함께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아동의 성별

American Humane Association(1985)의 신체적으로 상해를 받은 아동의 통계에 의하면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 나라 연구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자 아이일수록 학대를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1). 그러나 남아가 더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있어(김광일, 고복자, 1987; 신영화, 1986; 안동현, 홍강의, 1987; 이소희, 1990), 학대받는 아동의 성별에 대하여 일관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비일관성은 조사 대상 아동이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는가 또 학대의 종류와 기준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주목한 Gil의 연구를 살펴보면, 12세 이하의 학동기 때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유순하고 어른의 말에 순종적이기 때문에 신체적학대의 대상으로 남아가 더 많으나, 청소년층이 되면 여아는 데이트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통제와 힘의 사용이 늘어나 학대받는 경우가 증가하며, 남아는 육체적인 힘이 부모와 대등해지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가 줄어드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존중사상이 우세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모순된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즉 남아를 보호하고 우대하는 면으로 볼 때는 여아가 상대적으로 더 학대를 받을 수도 있으나 남아답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남아를 여아보다 심하게 다룰 경우 오히려 남아가 신체적 학대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학대 영역에 걸쳐 아동의 성별이 아동학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

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아동의 연령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신영화〔1986〕, 김혜영〔1989〕의 연구에서는 11~14세, 고성혜〔1992〕의 연구는 4,6학년, 김정준〔1986〕은 유아를 대상으로, 안동현 등〔1987〕은 15세 이하, 소숙희〔1986〕는 3학년, 이소희〔1989〕는 5학년 등, 연구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연구 내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알 수 있으나, 전 연령층에 걸쳐 어느 연령층이 가장 학대를 많이 받는가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연령에 따라 아동학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학대의 종류에 따라서도 연령분포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나 기타 주위환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 따라서는 아이를 기를 준비가 안되어 있든가 좋은 부모 노릇을 하기에는 생활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 자신이 학대를 유발한다기 보다는 부모의 이러한 정신 병리적 문제나 신생아기의 애착형성의 실패 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0대의 어머니들이 나이든 어머니보다 자녀를 더 학대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된다〔Mussen, Conger, Kagan, Huston, 1984〕.

아울러 아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체벌이나 훈육을 빙자한 학대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 사회에서의 체벌의 개념이나 한계, 폭력의 수용 분위기 등이 아동학대의 연구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3) 가족의 구조

1977~1984년 사이에 NSPCC에 등록된 피학대아의 가정환경을 보면, 부부의 불화, 실업 그리고 빚 등 이 3가지가 가장 빈번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중류계층보다 하류계층에서 더 많으며 10대의 어머니들이 나이든 어머니보다 자녀를 더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ssen et al 1984〕.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직업 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실태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고〔Gil, 1971, 1979; 주영희, 1984; 신영화, 1986; 김혜영, 1989〕, 빈곤하며〔김정준, 1986; 김광일 등, 1987〕, 특히 아버지가 실직인 경우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Cater & Easton, 1980; 김광일 등, 1987〕. Goode〔1971〕가 말한 바와 같

이 개인에게 유용한 자원이 많을수록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때, 부의 실업은 아동학대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폭력을 통해 권위를 주장하도록 하며, 실업에 의한 좌절감은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Madge, 1983].

반면,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대개 가난하고 빈곤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실제로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학대 부모의 내적인 스트레스는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uth & H. Kempe, 1978].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와 아동학대간의 관련성을 부모의 교육 수준과 부의 직업 및 실업 여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4) 가족의 기능

지속적인 학대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전체적 분위기나 가족의 가치관 등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적다. 소숙희[1986], 고성혜[199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학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부부간의 갈등, 불화[이영숙, 1984; 소숙희, 1986; 고성혜, 1992], 결혼의 불만족[황영희, 1983; 고성혜, 1989]등은 아동학대와 의미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가정 폭력은 자녀 구타를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폭력을 수용하는 가정에서 자녀 구타가 더 많이 일어나고 아내 구타에 수반하여 자녀 구타가 병행되거나[주영희, 1984; 김광일, 1985; 신영화, 1986], 화풀이로 자녀를 구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외에 결손가정, 계부.계모인 경우에 아동학대가 더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Gil, 1979; 주영희, 1985; 신영화, 1986; 김광일, 1987; 유춘식, 1988].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의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나 부부의 폭력 사용이 아동학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가정 내의 아동학대 잠재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2. 아동학대의 영향

아동학대는 학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누적 효과가 클 수 있으며, 단 한번의 학대에 의해서도 학대의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후유증이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히 타박상이나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며 반복되는 아동학대는 정신, 신체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Gay ford, 1975; 김광일, 1985〕. 더우기 구타당한 아동이 성장하여 본인 스스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거나 가정 및 사회 폭력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아동학대의 영향을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 건강상의 문제

학대받은 아동은 키와 몸무게가 적은 경우가 많았으며,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주영희〔1985〕는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검사를 통해 이들의 신장과 체중이 정상아에 비해 다소 낮았고, 빈혈, 영양불량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신체 건강 장애는 특히 여아들에게 많은데 주로 두통, 복통, 천식, 류머티즘 등의 증세를 보인다.

학대가 신체 건강상에 주는 영향은 학대가 발생한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낮은 연령일수록 신체적 손상이 더 심하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Gil, 1979; Creighton, 1987; 안동현 등, 1987〕.

한편 신체 건강 문제는 학대 이전에 발생하여 부모의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학대아동은 출생시 몸무게가 적거나 신경학적인 비정상 등이 정상 아동집단에 비해 더욱 빈번하였으며, 어릴 때 더 많이 아팠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런 신체적 미숙은 특히 아직 부모될 준비가 덜 되었거나 나이가 어린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정신, 운동 발달상의 문제

피학대 아동의 70%가 발달상의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들은 매우 다루기가 어렵고 부산스럽고 요구가 많으며 언어 발달이 지체된 경우가 많다〔Johnson & Morge, 1968〕. 6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피학대아와 정상아동집단을 비교 연구한 결과 피학대 아동이 언어 능력에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Morgan,1979〕, Oates와 그의 동료들〔1979〕도 방임 아동의 연구를 통해 그들이 언어 테스트에서 점수가 낮았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집에서의 적절한 언어 자극이 부족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학대아동의 IQ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Applebaum〔1977〕에 의하면 15달되는 유아를 정상아동집단과 학대아동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학대아동집단의 운동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남을 발견하였으며, IQ는 무려 31점이나 낮았다고 한다. 우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대받은 아동은 IQ가 평균 90정도로 낮은 편이었다〔주영희, 1985〕. 이처럼 피학대 아동은 IQ가 대체로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나, IQ가 낮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 성적은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이는 학습의 중요한 매개 변인인 언어 능력의 지체로 인한 결과이거나 또는 낮은 자아존중감, 야뇨증, 공격성, 불순종 등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Brown & Saqi, 1987〕.

3) 정서적인 문제

학대받은 아동은 대부분 불행, 슬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다.

피학대 아동에게 나타나는 특정한 인성 특성은 없으나, 이들이 보이는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부모의 타입, 학대가 일어났을 때가 어느 발달 단계였는가, 아동 자신이 가진 특성, 혹은 학대자가 누구인가 등에 의해 다르게 형성되리라고 본다. 피학대 아동이 보통 이상으로 과격하고, 자아개념이 낮으며, 신뢰심이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나쁘며, 비정상적 애착의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Rolson, 1971; Baher, 1976; Green, 1978; Kent 1976; Martin, 1976, Reidy, 1979〕.

Kinard〔1980〕는 30명의 학대받은 아동과 정상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정서발달의 5가지 면, 즉 자아개념, 공격성, 사회화, 타인과의 신뢰성 발달, 어머니와의 분리 등에서 두 집단간의 심각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 연구한 Wolfe와 Mosk〔1983〕는 공격성, 우울, 의기소침, 과잉활동증 등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학대받은 아동이 더 공격적이며 냉담하고 덜 순종적이라고 보고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권지영, 1991; 김정준, 1986; Burgess & Conger, 1977; Straker & Jacobson, 1981; Waterman & Martin, 1981; Trichett & Kuczynski,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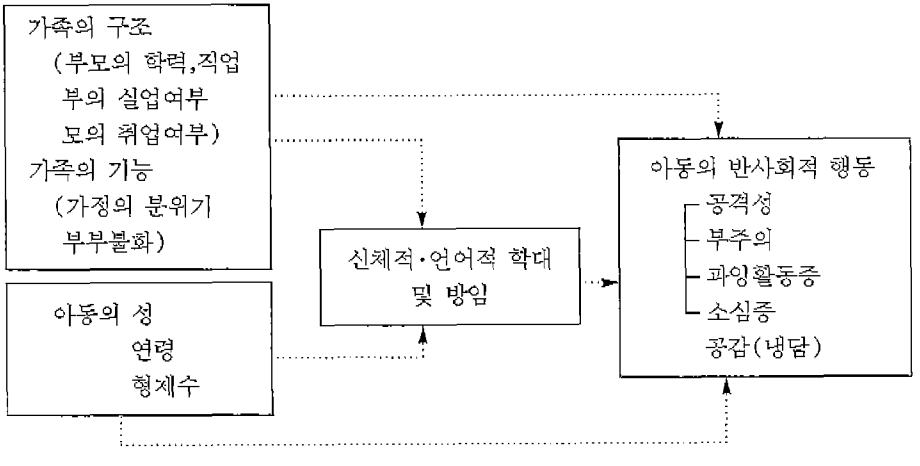
또 하나의 중요한 학대의 결과는 이들이 장차 커서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대받은 아동이 커서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는 점이다[Belsky, 1980].

3. 연구의 분석틀

위에 언급한 사실들로 보아 학대받은 아동에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학대의 결과들은 학대받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누적된 구타나 방임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는 더 나아가 사회 폭력,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경변인으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 아동의 개별변인을 선정하고, 신체적·언어적 학대 및 방임을 매개변인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1 : 연구의 틀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Straus, 1979; Steimnetz, 1987〕 학령기 아동을 일차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저학년의 경우에는 응답 능력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초등학교 3학년을 선정하였고, 고학년의 경우는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서울 시내를 여섯 개의 구획으로 크게 갈라 그 중 각각 한 초등학교에 조사를 실시하여 978부의 자료를 얻었다.

2. 척 도

1) 아동학대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아동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줄 수 있는 부모의 모든 구타행위, 언어적 폭력, 방임을 아동학대로 정의한다.

신체적 학대 척도는 Straus가 1979년도에 개발한 CTS(Conflict Tactics Scale)를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 빈도를 응답하게 하는 구조적 방식과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직접 기록하게 하는 개방적 방식을 취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종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CTS를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언어적 학대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 혹은 순종하지 않을 경우,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어머니의 언어사용 유형을 아동의 언어적 학대에 관한 제연구〔신영화, 1986; 고성혜, 1992〕시 사용된 문항들과 개방형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15개 문항의 언어적 학대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고의로 또는 방심으로 인하여 아동이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임의 측정을 위해 NCCAN〔1986〕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최윤라〔1988〕가 아동관련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완성한 방임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본 후, 다시 수정 작업을 걸쳐 최종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방임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71로 나타났다.

2)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

공격성 측정도구는 Murray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황정규〔1965〕의 욕구진단검사 가운데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본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을 첨가하고, 부주의·과잉활동증·소심증은 Rutter〔1982〕의 반사회적 행동측정 척도 중 이에 해당하는 20개의 문항을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40 이상인 문항인 공격성 25개 문항, 부주의 5 문항, 과잉활동증 4문항, 소심증 3문항이 본 연구의 척도로 선정되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각각 .89, .71, .78,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측정도구는 Bryant의 아동 및 청소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참고로 연진영〔1987〕이 제작한 총 17개 문항을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난 다섯 문항을 삭제하고 12문항을 본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로 확정지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72 이다.

3) 가정환경

가족의 구조는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실업여부, 모의 취업여부, 친부모 여부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가족의 기능은 가정분위기와 부부불화 정도로 측정하였다.

가정환경에 해당하는 가정분위기는 이소희〔1989〕의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분석연구 중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의 측정을 위한 척도 24문항 중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간 상관관계가 낮은 12문항을 제외한 12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제작·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65, .61이었다.

갈등적 분위기는 가족이 서로 이해타산적으로 생활하므로, 가족 관계가 비협조적이며, 가정 내부에 불신, 시기, 증오가 팽배해 있는 것을 의미하며, 패쇄적 분위기는 불평등과 위계적인 가족의 집단 성격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문화 내의 가족은 고정된 가족역할의식, 의사소통의 부재, 불평등, 비합리 등의 특성을 지니는 가정분위기로 정의한다.

부부간의 불화도는 조사대상자가 되는 아동 부모의 사이의 좋고 나쁨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본 척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체적 폭력행사를 포함한 싸움 여부에 관한 문항과 전반적인 부모 사이의 화합 정도를 물어 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신뢰도 계수는 .64 이다.

4) 아동 개인 변인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형제수를 응답케 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아동학대와 관련 변인

가정의 분위기 및 부부의 불화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부모의 교육 정도, 아버지의 직업 및 실업 여부, 어머니의 취업 여부, 친부모 여부, 또한 아동 자신의 성별, 연령, 형제수 등의 변인 등의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학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은 12개의 변인 중 5개의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신체적 학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로(Beta=.21, P<.001), 가정의 분위기가 갈등적일 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이 각각 −.18, −.17의 Beta값을 나타내어, 아동이 남아이며 어릴수록 신체적 학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행하고 있으며(Beta=−.15, P<.001), 가정의 분위기가 전제적일수록 신체적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Beta=.14, P<.001).

언어적 학대의 경우에는 갈등적 분위기 > 부부 불화 > 아동의 성별 > 전

표 1 : 아동학대의 회귀분석

아동학대	단 계	R^2	R^2 Change	Beta	F
신체적 학대	1. 갈등적분위기	.08***	.08	.21***	33.48***
	2. 아동의 성별	.11***	.03	−.17***	
	3. 아동의 연령	.13***	.02	−.18***	
	4. 어머니 교육	.16***	.03	−.15***	
	5. 전제적분위기	.18***	.02	.14***	
언어적 학대	1. 갈등적분위기	.09***	.09	.19***	25.20***
	2. 부부 불화도	.11***	.02	.13***	
	3. 아동의 성별	.12***	.01	−.11***	
	4. 전제적분위기	.13***	.01	.10**	
	5. 어머니 교육	.14***	.01	−.07*	
방 임	1. 갈등적분위기	.08***	.08	.16***	24.65***
	2. 전제적분위기	.11***	.03	.15***	
	3. 부부 불화도	.12***	.01	.13***	
	4. 아동의 연령	.13***	.01	.11***	
	5. 아동의 성별	.14***	.01	−.07*	

주 : R^2의 ***는 F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Beta의 ***는 T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제적 분위기 > 어머니의 교육 등의 다섯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갈등적이며, 아동의 부모가 불화할수록 자녀에 대한 언어적 학대는 증가하며,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빈번한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전제적 분위기가 언어적 학대의 발생율을 높이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언어적 학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에는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가 각각 Beta 값이 .16과 .15로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부부의 불화도가, 아동의 연령과 성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갈등적이고 전제적이며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아동의 연령이 높으며 남아일수록 방임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동학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이 갈등적일수록 그 가정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있는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방임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 준다. 또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조성하는 가정의 전반적 분위기와 아동의 특성 변인인 것으로 밝혀져 부의 직업과 같은 가족의 구조보다는 가족의 기능인 그 가정의 화합도나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학대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더 신체적학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김광일, 고복자, 1987; 신영화, 1986; 이소희, 1990].

2. 아동학대와 반사회적 행동(공감[1])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첫번째 단계로 투입된 것은 언어적학대 변인이며 두번째로는 방임 변인이, 마지막으로 신체적학대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세 변인이 갖는 설명력은 17% 이다. 즉,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또한 방임을 많이 받을수록 아동은 더 공격적인 것을 알 수 있다[George, & Main, 1979; Reidy, 1977; Green, 1978; Kinard, 1980; McCord, 1979; Wolf, & Morse, 1983; 김정준, 1986; 노치영, 1988; 최윤라, 1988].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폭력행위나 무관심, 욕설등의 모델링 효과 및 관찰학습의 결과로 보여지며, 결국 폭력의 근원이 가정의 부모 역할에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집중력이 약하고 주의가 산만한 특성을 갖는 부주의와의 관련변인으로 첫번째 단계로 투입된 변인은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학대 변인으로 7%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P<.001$), 다음으로는 방임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투입되어, 언어적으로 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방임이 많이 될수록 아동의 주의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 모두는 아동의 과잉활동증에 영향력

1)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결여된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세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력은 10%에 해당한다(P<.001). 각 변인의 과잉활동증에의 영향력을 살펴 보면, 언어적 학대(β=.18, P<.001)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표 2 : 반사회적 행동 및 공감의 회귀분석

반사회적행동 및 공감	STEP Entered	R^2	R^2 Change	Beta	F
공 격 성	1. 언어적학대	.13***	.13	.23***	52.41***
	2. 방 임	.16***	.03	.17***	
	3. 신체적학대	.17***	.01	.10***	
부 주 의	1. 언어적학대	.07***	.07	.21***	52.41***
	2. 방 임	.09***	.02	.15***	
과잉활동증	1. 언어적학대	.08***	.08	.18***	39.04***
	2. 신체적학대	.09***	.01	.13***	
	3. 방 임	.10***	.01	.09*	
소 심 증	1. 언어적학대	.06***	.06	.19***	28.64***
	2. 방 임	.09***	.03	.16***	
공 감	1. 언어적학대	.04***	.04	−.15***	52.41***
	2. 방 임	.06***	.02	−.15***	

주 : R^2의 ***는 F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Beta의 ***는 T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르킴

있으며, 다음으로는 다른 반사회적 행동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과잉활동증에서는 아동이 경험한 신체적 학대(β=.13, P<.01) 정도가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방임 변인(β=.09, P<.05)이 아동의 과잉활동증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심증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신체적 학대를 제외한 언어적 학대와 방임의 두 변인으로 나타났다(P<.001).

전술한 여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공격성과 과잉활동증에는 언어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부주의와 소심증에는

언어적 학대와 방임만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가지 유형의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모두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변인은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동이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많이 유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와 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번째 단계로는 언어적 학대가, 두번째 단계로는 방임이 투입되어 총 6%의 설명력을 갖는다. 이 두 변인은 모두 $\beta=-.15(P<.001)$ 로 거의 비슷한 부적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언어적 학대와 방임을 많이 겪을수록 아동의 공감수준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공감이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인지적, 정의적 반응이라고 할 때,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동은 타인에게도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되어 공감 발달이 저하되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Barahal, Waterman & Martin, 1981; Straker & Jacobson, 1981; 최원라, 1988].

3. 종합분석으로의 경로 모델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제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사회적 행동의 5개 하위차원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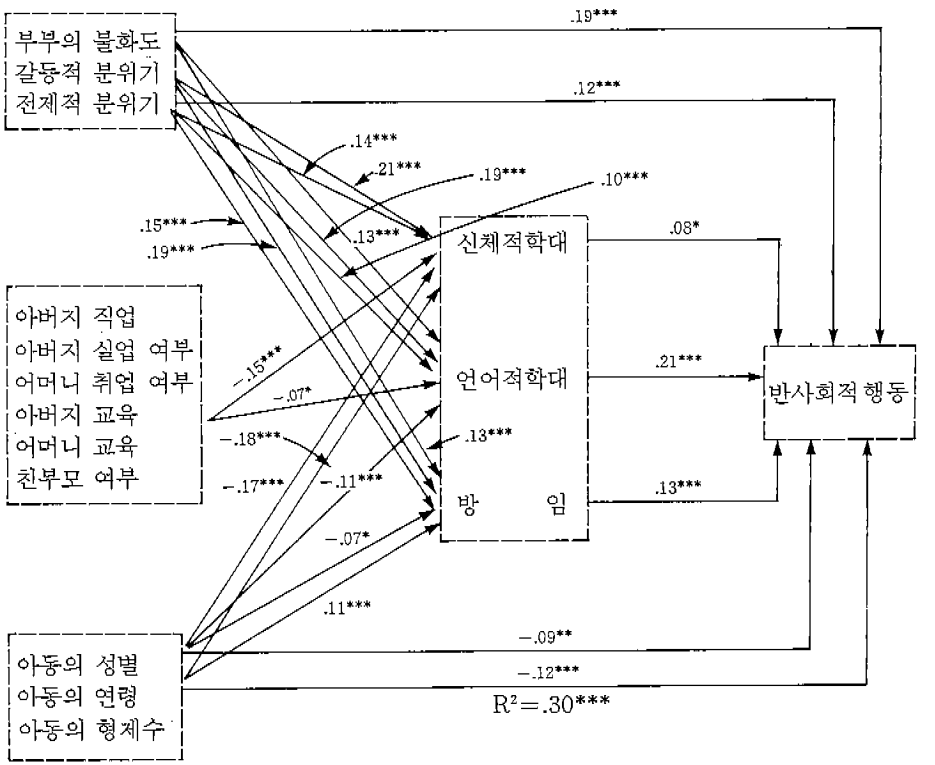
표 3 : 반사회적 행동의 요인 부하량

	요인 1	공통변량
공 격 성	.78	.62
부 주 의	.73	.55
과잉활동증	.77	.59
소 심 증	.63	.40
공 감	−.62	.40

주 : 고유치 2.55(51.1%)

다섯 개의 하위 차원이 단일 요인으로 묶여 하나의 요인, 즉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앞선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림 2 :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변인의 경로분석



주 : * P<.05 에서 유의미 ** P<.01 에서 유의미 *** P<.001에서 유의미

반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학대변인을 매개 변인으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 아동 변인을 선행변인으로 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변인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환경 변인 중 가족의 기능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면, '부부의 불화도'는 '언어적 학대(Beta=.13, P<.001)' 및 '방임(Beta=.13, P<.001)'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갈등적 분위기'와 '전제적 분위기'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학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직접적으로도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적 분위기는 학대변인(신체적 학대 : Beta=.21, P<.001, 언어적 학대 : Beta=.19, P<.001, 방임 : Beta=.16, P<.001)에는 물론 반사회적 행동(Beta=.19, P<.001)에도 어느 선행변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화목한 분위기인 가족의 기능이 아동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가족의 구조 6개의 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인은 아동학대는 물론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도 연관이 없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직접·간접 효과가 모두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신체적 학대(Beta=−.15, P<.001)'와 '언어적 학대(Beta=−.07, P<.05)'와 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학대를 자녀에게 할 확률이 높고, 자녀에 대한 학대는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형제수' 중 성별과 연령은 아동학대는 물론 반사회적 행동과도 연관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성별과의 관계를 보면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학대는 덜 받으나 방임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대변인은 모두 반사회적 행동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행동에는 그 중 언어적 학대(Beta=.21, P<.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방임(Beta=.13, P<.001), 신체적 학대(Beta=.08, P<.05)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의 기능과 아동학대라는 것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다. 가족의 기능에서는 가족간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학대변인중에서는 언어적인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의 구조는 어머니의 교육이 간접적으로만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되었을 뿐 나머지 변인들은 간접적인 효과마저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이 반사회적 행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적인 가정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관련변인을 살펴 보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련 여부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행해졌다. 그 결과, 다음 몇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아동학대에는 가족의 기능(가정의 갈등적, 전제적 분위기와 부부의 불화도)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로서, 가정이 갈등적일수록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구조에 의해 아동학대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사회의 통념을 거부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주요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가족원이 만들어 내는 화합도나 분위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결과는 하층이라는 구조의 특색의 일환으로 아동학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분위기가 갈등적일 때 가족원의 긴장과 분노, 욕구 불만등이 팽배하여 에너지 분출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인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 가정의 분위기와 화합의 장본인이 부부임을 생각해 볼때 부부간의 갈등과 반목이 자녀 학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경우 자녀는 그 가정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간의 불화나 가정 분위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 자신의 성별과 연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여아보다는 남아가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세 아동이 10세 아동보다 신체적학대는 적게, 방임은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더 넓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과잉활동증은 아동학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어,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방임될수록 아동의 공격성과 과잉활동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와 소심증, 공감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언어적 학대와 방임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하였다. 종합적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유형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보다도 우리가 흔히 학대라 생각하지않기 쉬운 언어적 학대와 방임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원들간의 무심코 던지는 아동에 대한 욕설이나, 습관적인 구박이 오히려 아동에게 정서적 상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가족 구성원들이나 사회 성원들이 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언어적학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결과이다.

셋째, 종합적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의 기능(갈등적·전제적 분위기)변인, 아동학대 변인, 아동 자신의 성별 및 연령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갈등적이고 전제적인 분위기와 아동학대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킨다. 가정의 갈등적이고 전제적인 분위기는 아동학대를 일으키고 아동학대는 다시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직접적으로도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를 경험하고 방임될수록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은 증가하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말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의 구조 중 어머니의 교육 변인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인들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 간접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검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속하는 가정에서 양육받는 아동들이 더 빈번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다는 하층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의 기능(특히 가정분위기)과 아동학대가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이 결국은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본 연구결과는 비행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에 관계 없이 아동에게 신체적·언어적 학대가 반복되어 아동이 심리적 손상을 입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면 심한 경우 비행·가출등의 일탈 행동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 자신의 욕구 불만이나 분노의 통제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자녀 훈육의 실제 및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원할한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를 통한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한 감이 없지 않아 부모의 매까지도 학대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성적 학대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학대 영역을 분류하고, 학대의 강도와 빈도까지 포함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학대의 기준과 수용할 수 있는 체벌의 한계를 구분해서 연구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실이 왜곡,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학대를 그 강도에 관계없이 동등한 점수를 준 것에 문제가 있다. 단 한번의 구타라도 심한 신체적 손상을 주는 학대와 가볍게 맞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는 집단적 접근과 함께 아동의 행동 관찰, 사례연구, 면접등을 통한 개별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대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므로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범위를 좀 더 넓혀서 학대의 영역별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분위기 변인이 아동학대 발생과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관련이 큰 변인임을 밝혔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대하는 부모의 인성 특성 및 아동 자신의 기질 등 심리적 변인을 더 도입해서 탐색할 것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고성혜(1992),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61-171.

권은주(1977),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석사 논문.

권자영(1991), "학대가 아동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991년도 춘계 학술대회.

김광일 편(1988), 「가정 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김광일, 고복자(1987), "아동 구타 발생율 조사", 「정신건강연구」, 제6집,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김정준(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논문.

김준호(1990),「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영(1989),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아동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제16집, 서울시립아동상담소.

김화영, 서용태, 최영륜(1984), "응급실 환아의 통계적 관찰". 소아과, 27; 60-65.

노치영(1988), "가정 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 논문.

소숙희(1986),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대 석사 논문.

송은일(1991),「한국의 아동학대 실상에 대한 연구」, 제15권, 생활문화연구소, 성신여대.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족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논문.

안동현,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정신건강연구」, 제6집,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연진영(1987), "아동의 공감 발달 및 관련 변인", 서울대 박사학위 청구 논문.

유춘식(1987), "아동의 권익 보호 신고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현황",「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14, 7-36.

이소희(1989),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 환경 분석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이영숙(1984), "부부 갈등과 아동학대", 군산대학 논문집, 제7권.

이재연(199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모 교육 프로그램 탐색", 대한소아 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 학술 회의.

주영희(1985), "가출 아동을 통한 학대에 관한 조사 연구",「사회 복지」, 80호.

최윤라(1988), "학대 받은 아동과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 논문.

Brown, K & Sagi, S. (1987), "Parent-child interaction in abusing families : its possible causes and consequences," In P.Maher(ed), *Child abuse.* Oxford : Basil Blackwell. 77-103.

Burgess, R. & Conger, R.(1978), "Family interaction in abusive, neglectful and norm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49,* 1163-1173.

Creighton, S.T. (1988)," Quantitative assessment of child abus," In *Child abuse,* P.Maher(ed.), Oxford : Basil Blackwell.

Finkelhor, D., Gelles, R., Hotaling, G. & Straus, M.(1983), *The dark side of families,* Sage publication.

Garbarino, J. (1989),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maltreatment," In

Family violence, Lloyd Oblin & Michael Tonry(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arbarino, G. (1977),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 A conceptual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721-735.

Gerald, Hotaling, Finkelhor, D., Kirkpatrick, J. & Straus, M.(ed.) (1988), *Coping with family violance — Research, policy perspectives —* , Sage publications.

Gelles, G. & Conte(1991),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buse of childrens. A review of research in eighties," In *Contemporan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Minnesota : NCFR.

Gil, D.G. (1975), "Unreveling child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 Psychiatry", 43,* 611-621.

——— (1979), *Child abuse and violence,* New York : Ams press Inc.

——— (1979),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Child abuse and violence,* D. Gil(ed.), New York : Ams press Inc.

Giovannoni, J.M.(1976), "Parental maltreatment : perpetrators and victi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649-657.

Green, A.H.(1978), "Psychopathlogy of abuse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iatry, 17,* 92-103.

Helfer, R. & Kempe, H.(1974), *The battered child,* 1st.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ffman-plotkin, D. & Twenty man, C.T.(1984), "A multimoda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794-802.

Johnson,B. & Morse, H.A.(1968), "Injur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Children, 15,* 147-152.

Madge, N. (1983), "Unemployment and its effects o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4(2),* 311-319.

Maher, P.(1987), *Child abuse— The educational perspective,* Basil Blackwell.

McGee, R., Williams,S., & Silva, P.(1985), "Factor structure and correlates of ratings of intention, hyperactivity and antisocial behavior in a large sample of 1 year old children from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480-490.

Mussen,P., Conger,J., Kagan, J. & Huston, A.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Oates, K.(ed.), (1982), *Child abuse —a community concern—*, Butler Worths.

Oblin, Lloyd & Michael, T.(1989), *Family viole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senberg, M. & Reppucci, D. (1985), "Primary prevention of child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5),* 576-585.

Ruth, S. & Kempe, H. (1978), *Child abuse*. Harvard University Press.

Straker, G. & Jacobson, R.S.(1981), "Aggression, emotional maladjustment, and empathy in the abused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762-765.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Trickett, P. & Kuczynski, L. (1986), "Children's misbehavior and parental discipline strategies in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115-123.

Wolfe, D. & Mosk, M. (1983), "Behavioral comparisons of children from abusive and distressed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5),* 702-708.